Special Feature

미국의 2023년 고용전망

Randall W. Eberts (Senior Researcher, W.E. Upjohn Institute for Employment Research)

■ 머리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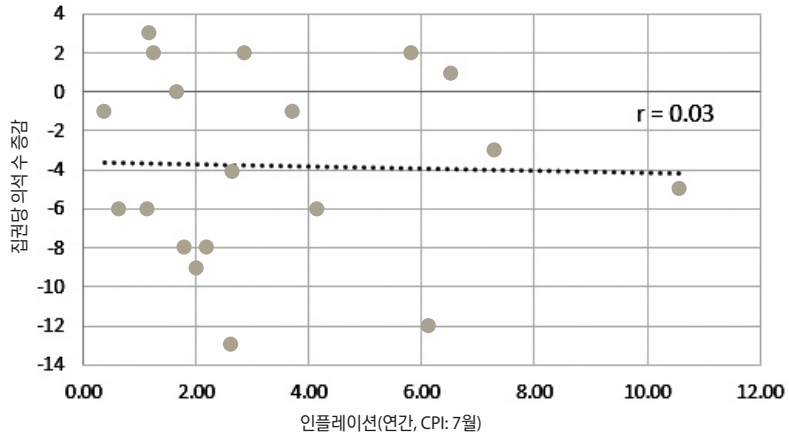
미국 대통령 4년 임기 중반에 실시되는 양원 선거인 중간선거에서는 일반적으로 대통령 소속당이 의석을 잃는다. UC 산타바바라의 "미 대통령직 프로젝트" 분석에 따르면, 1934~2018년에 치러진 22번의 중간선거에서 대통령 소속 정당은 평균적으로 하원 28석, 상원 4석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1] 하지만 2022년 중간선거에서 집권당인 민주당은 하원에서는 다수당 지위를 놓치고 말았지만 상원에서는 우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고, 하원에서도 공화당의 의석 수는 민주당보다 단지 9개 더 많았다. 이는 중간선거 이전 양당의 의석 수 차이와 같다.

2022년 중간선거 유권자의 가장 큰 관심사는 경제와 관련된 두 가지 이슈, 인플레이션과 일자리였다. 일시적이라고 생각한 인플레이션 상황이 40여 년 전을 연상시키는 장기적인 물가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2022년 중반의 물가상승률은 전년대비 9.1%에 달했다. 2022년 11월 중간선거 시기에 이르러서는 7.7%로 낮아지면서 물가상승세가 진정될 기미가 보이는 듯했지만, 당장 다음 달에라도 인플레이션 수치가 다시 급증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이러한 소폭 하락은 유권자에게 큰 위안이 되지 못했다.

1) The American Presidency Project, "The 2022 Midterm Elections : What the Historical Data Suggest", 2022.8.30.

중간선거가 시작되면서 높은 인플레이션은 민주당과 바이든 정부의 고민거리였지만 고용성장률은 양호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았다. 많은 전문가는 이러한 상황이 특히 현 대통령 소속 정당과 관련하여, 상·하원의 다수당 지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는 질문을 갖고 있었다. 질문에 대한 답은 역사에서도 구할 수 있는데, "미 대통령직 프로젝트"에서 이와 관련하여 매우 흥미로운 자료를 발표했다. 1946년부터 2018년까지 치러진 중간선거를 분석한 자료로, 각 선거마다 집권당의 상·하원 의석 수 증감이 인플레이션 및 고용성장률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그림 1]~[그림 4]에서 알 수 있듯이, [그림 2]를 제외한 나머지 그림의 추세선은 거의 수평한 모습을 보인다. [그림 2]의 추세선은 음의 기울기와 0.22의 상관성을 나타낸다. 하지만 이 정도의 상관성은 약한 수준으로 실제 중간선거 결과는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았다. 뉴욕타임즈 역시 중간선거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제시한 바 있지만, 전국적으로 하원 후보에 행사한 투표 수를 집계한 결과, 공화당원이 민주당원보다 많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공화당 후보들보다 민주당 후보들의 역량이 더 뛰어났기 때문에 선거에서 민주당이 공화당만큼 성적을 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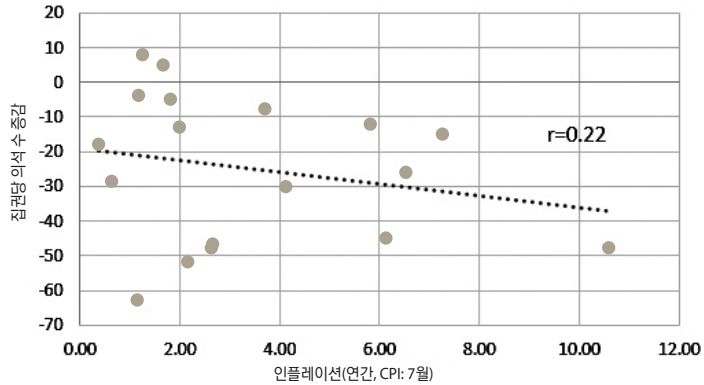
[그림 1] 인플레이션과 집권당의 상원 의석 수 증감 관계(1946~2018년)



자료 : The American Presidency Project, "The 2022 Midterm Elections : What the Historical Data Suggest", 2022.8.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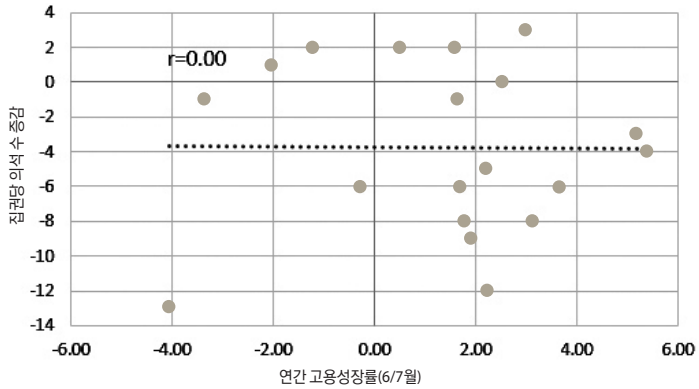
2) The New York Times, "2022 Review : How Republicans Lost Despite Winning the Popular Vote", 2022.12.13.

[그림 2] 인플레이션과 집권당의 하원 의석 수 증감 관계(1946~201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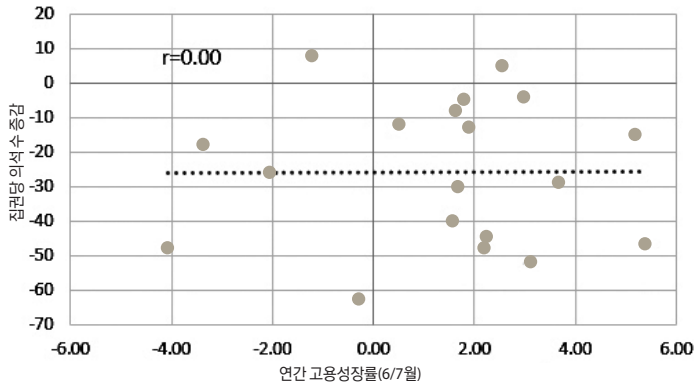
자료 : [그림 1]과 동일.

[그림 3] 고용성장률과 집권당의 상원 의석 수 증감 관계(1946~2018년)



자료 : [그림 1]과 동일.

[그림 4] 고용성장률과 집권당의 하원 의석 수 증감 관계(1946~2018년)



자료 : [그림 1]과 동일.

■ 2022년 바이든 대통령이 통과시킨 법안

바이든 대통령은 경제회복 방안을 담았던 이전 법안들과 달리 시민적 이슈에 초점을 둔 법안들에 서명했다. 아동 영양 프로그램의 유연성을 강화하는 「어린이 급식법」(S. 2089), 총기구매 관련 제한 및 징벌을 강화하고 정신건강시설 접근성 확대를 위한 보조금을 승인하는 「초당적 안전공동체법」(S.2938), 동성 및 인종 간 결혼에 대한 법적 허용을 확고히 하고,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주정부에, 다른 주 또는 준주에서 결혼한 동성 부부를 인정하지 않는 권한을 부여했던 조항을 폐지하는 「결혼존중법」(H.R. 8404) 등이 2022년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법안이다.

경제에 영향을 미치거나 일자리 추가 창출을 위한 법안들도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반도체법」(S. 4376)은 미국의 경쟁력, 혁신성 및 국가 안보를 강화하는 데 취지가 있다. 이 법안은 국내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첨단 제조업 개발에 542억 달러의 자금 지출을 승인한다. 여기에 더해 컴퓨터칩 제조사인 마이크론은 메모리칩 제조에 4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는데, 투자가 성사되면 미국의 메모리칩 생산 시장 점유율은 현재 2% 미만 수준에서 향후 10년에 걸쳐 최대 10%까지 늘어날 것이다. 또한 이 법안은 "청정에너지 인큐베이터 프로그램", "탄소 소재 과학 이니셔티브" 등 연방 과학기관의 다양한 프로그램 및 활동을 승인했다.

■ 경 제

2022년에 시작되어 적어도 2023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높은 인플레이션을 설명하는 데 있어,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첫해에 서명했던 2조 달러에 육박하는 "미국구제계획"을 언급하는 이들이 많다. 최근 추산에 따르면 가계 대차대조표는 5조 달러 이상으로 증가했으며, 이는 부분적으로 미국구제계획을 통해 소비자에게 지급된 자금 때문이다. 재정지원 외에 소비포기도 그 원인 중 하나이다. 최상 사분위에 속하는 소비자의 초과저축 대부분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정점에 달하던 시기의 소비포기로 인한 것이다. 이러한 초과저축은 부분적으로는 "구매할 만한 상품과 서비스는 너무 적은 데에 비해 너무 많은 돈"으로서 전형적인 가격

상승의 원인이 되어 인플레이션을 야기했을 수 있다. 연준은 흑자 규모가 큰 가계들의 초과저축분 사용이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타이트한 노동시장 형성 및 물가상승에 기여했다고 분석한다. 초과저축이라는 완충장치가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연준은 경기가 둔화되더라도 어느 정도의 가계 수지를 지원하기에는 충분하며 그렇지 않으면 물가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결론지었다.[3)]

대부분의 경제학자가 당초에는 높은 물가상승률이 지속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1970년대 말과 1980년대 초의 상황을 돌아보며 인플레이션의 장기화를 인정하고 있다. 연준은 연방기금금리 인상을 0.5~0.75%p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힘써 왔다. 2022년 12월 14일에 폐회한 연방시장공개위원회(FOMC) 회의에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지급준비금 금리를 4.4%로 인상하는 데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이날을 기준으로 연방기금금리 목표는 4.25~4.5%인데, 1년 전 목표치는 0.25%였다.

대폭적인 물가상승 소식을 너무나 많이 접하다 보면 2022년 1분기만 해도 연준이 연방기금금리를 거의 제로로 유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잊곤 한다. 또한 연준은 경기부양을 위해 매달 수십억 달러의 채권을 사들이는 양적완화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인플레이션이 단순히 팬데믹과 공급사슬의 한시적 붕괴로 인한 흔적이 아니라 당초 예상보다 오래 지속될 것이라고 판단되자, 연준은 6개월여 만에 연방기금금리 3.5%p 인상을 강행했다. 연준의 목표는 경기침체를 촉발하지 않고 물가상승률을 낮추는 것이다. 제롬 파월 연준위원장은 잭슨홀 연설에서 "물가가 안정되지 않으면 경제는 누구에게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라며, "물가안정 없이는 모두에게 이로운 견고한 노동시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연준이 인플레이션이 왜 이처럼 빠르게 발생했는지 이해하는 데는 시간이 걸렸다. 여러 저명한 경제학자들은 물가인상이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라고 주장했으며, 팬데믹이 완화되어 사람들이 다시 출근하는 데 익숙해지고 글로벌 공급사슬이 제자리를 잡게 되면 인플레이션도 다시 낮아질 것으로 생각했다. 2022년 12월 기준으로 지난 2개월 동안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많은 이들이 현재의 물가상승을 40여 년 전 상황과 비교하고 있

3) 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Excess Saving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2022.10.21.

다. 당시 연준은 연방기금 유효금리를 20%에 달할 만큼 인상하고 그 대가로 연이어 두 차례의 경기침체를 야기하면서까지 인플레이션을 끌어내려야 했다. 현재 연준은 경기침체를 우려하고 있지만 과거만큼 인플레이션이 국민들의 경제적 의식에 내재하고 있지는 않은 듯하다. 인플레이션 전망치가 비교적 안정적이고 고용성장률도 건전하며, 유능한 인력에 대한 기업의 수요도 아직 크기 때문이다.

2022년 11월 물가상승률은 전월대비 더욱 감소했다. 계절조정 전 기준 CPI-U의 전항목 지수는 연간 7.1% 상승했고, 변동성이 큰 식품 및 에너지를 제외하면 6.0%의 상승률을 보였다. 두 수치 모두 전월보다 낮았다. 예상보다는 여전히 높지만 이처럼 인플레이션이 낮아진 것은 장기 인플레이션 예측과 일치한다. 5년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2022년 6월 초 3%가 넘었지만 11월 초에는 2.7% 아래로 떨어졌다. 미시간대학교 소비자 조사의 5~10년 인플레이션 전망치도 최근 몇 개월 동안 3% 미만으로 낮아졌다가 11월 초 조사에서 최대 3.0%로 소폭 상승했다. 이러한 수치들은 장기적인 인플레이션 예상치가 상당히 고정적임을 의미한다.

비농업 부문의 총 임금고용은 2022년 11월 26만 3천 명으로 증가했지만 실업률은 3.7%로 변함이 없었다. 실업자 1명당 구인건수 배율은 2022년 7월에 1.97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글 작성 시점 기준으로 가장 최근의 수치는 2022년 10월 1.71로, 7월에 비해 13% 낮아졌다. 고용과 구인건이 많다는 것은 사용자가 역량 있는 노동자를 계속해서 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필라델피아 연준이 최근 경제 전망기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전망기관들은 2023년 GDP 성장률은 평균에 미치지 못하며 헤드라인 소비자물가지수와 헤드라인 개인소비지출로 측정한 인플레이션은 이전 전망치보다 높고 연준이 기대하는 2.0% 수준보다 최소한 0.9%p 높을 것으로 내다보면서, 2023년이 다소 부진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4] 해당 전망기관들에 의하면 경제성장 전망치는 계속 낮아지고 있다. 2023년에 가까워질수록 실질 GDP와 임금 전망치는 감소하고 있다. 실질 GDP와 임금 모두 2023년 1~3분기 동안 이전 전망치보다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 1~2분기의 실질 GDP는 아주 미세하게 오르고 3분기에는 약 0.9% 상승한 후 4분기에 2.1% 오를 것으로 전망한다. 하지만 전망기관들은 2025년까

4) 필라델피아 연준은 분기마다 38개 이상의 전망기관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가장 최근의 조사 결과는 2022년 11월 14일에 발표되었고, 분기별로 거의 동일한 시점(각 분기의 두 번째 달 중순경)에 조사 결과가 발표된다.

지 실질 GDP가 2% 이상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임금고용의 경우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몇 개월 동안 줄어들기는 했지만 2023년 4분기에 이르러서는 전례 없이 월 고용이 계속 증가하기 시작했던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임금고용이 줄어드는 상황을 겪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 노동조합

미국인들의 노동조합에 대한 우호적인 시각은 2023년에도 지속될 것이다. 갤럽이 매년 실시하는 노동·교육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1%가 노조에 찬성의견을 나타냈는데 이는 전년 대비 3%p 높은 수치이며 노조에 대한 의견 조사가 시작된 1936년 이후 기록된 최고치보다 불과 3%p 낮은 수치이다.[5] 미국인 중 16%만이 가구 구성원 중 1인 이상이 노조원인 가구에 속하며, 불과 6%가 자신도 노조원이라고 응답했다. 일선 및 생산직 노동자가 노조원일 확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아(약 20%) 응답자 5명 중 1명이 노조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가 있을 뿐인데도, 조사결과는 노조에 대한 미국인의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조사 응답을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노조에 대한 우호적인 관점은 공화당원과 민주당원, 보수주의자와 진보주의자 사이에서 가장 큰 격차가 있었다. 정당 간에는 33%p, 정치성향에 따른 차이는 31%p로 나타났다. 이러한 정당 간 차이는 한동안 지속되고 있다. 조사 시작 이후로 노조에 대한 우호적인 입장이 가장 낮았던 2009년 공화당원과 민주당원 간 차이는 37%p로 이번 조사결과보다 더 컸다. 일각에서는 큰 격차의 원인을 자동차 산업 긴급구제에서 찾았고, 미국인의 상당수가 자동차 산업의 문제를 노조 탓으로 돌렸다. 노조에 대한 높은 지지율은 친노조 성향에 자부심을 갖고 있는 민주당 정부 임기 중에 나타난다.

노조원 응답자들은 노조에 가입하는 가장 큰 이유로 임금 및 수당 개선(65%)과 노동자의 권리 및 대표성(57%)을 꼽았다. 업무환경 개선(25%), 직장 내 공정성 및 형평성(23%)을 꼽은 응답자도 4명 중 1명 꼴이었다. 한편 비노조원 응답자들은 노조에 가입하고자 하는 강한

5) Gallup News, “U.S. Approval of Labor Unions at Highest Point Since 1965”, 2022.8.30.

의사가 있냐는 질문에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답했다(“노조 가입에 전혀 관심 없음” 58%). 또한 업무 몰입도에 대한 질문에서는 노조원의 27%, 비노조원의 33%만이 긍정적으로 답했다. 갤럽은 직원의 업무 몰입을 업무와 직장에 대한 직원의 관여 및 열의로 정의한다. 또한 갤럽은 직원의 업무 몰입도가 높을수록 생산성도 높아지는 것으로 본다.

■ 최저임금

연방 최저임금은 시급 7.25달러를 유지하고 있다. 2023년은 동일한 최저임금이 유지된 지 14년이 되는 해로, 연방 최저임금 역사상 변동이 없는 최장 기간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 경제정책연구소에 따르면 2022년과 2023년까지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2022년 7월 연방 최저임금 노동자의 소득은 2009년 7월에 비해 27.4% 낮은데, 이는 1956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연방 최저임금은 연장근무수당을 받는 노동자에게 시간당 7.25달러 미만의 임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한 임금 하한선이며, 많은 주가 관할권 내 노동자에게 그보다 더 높은 최저임금을 책정해 왔다. 캘리포니아 주의 최저임금은 미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15.50달러이고, 캘리포니아 내 40개가 넘는 시의 최저임금은 주 최저임금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다. 가장 높은 시는 실리콘밸리의 중심지인 마운틴뷰 시로 시급 18.15달러를 지급한다. 미국에서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곳은 19.06달러인 시애틀 공항(SEATAC)이다.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주는 워싱턴 주로 시급 15.74달러이며, 최저시급이 13달러를 초과하는 주는 15개가 넘는다.

2023년에는 24개 주에서 최저임금이 인상된다. 가장 최근에는 네브래스카, 네바다, 워싱턴 D.C.에서 인상안이 통과되었고, 일부 주 및 지자체는 주로 팁 노동자가 영향을 받는 최저임금 분리제도를 폐지하여 팁 노동자도 일반 노동자와 동일한 임금을 받게 된다. 최저임금 분리제도 폐지와 관련된 또 다른 이슈는 사업장 규모인데, 특히 지자체의 경우가 그렇다. 일부 시에서는 고용규모 50인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장의 노동자에 대해 특정 금액의 최저임금을 지정하고 있다. 따라서 50인 이상 고용한 회사는 해당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더 작은 규모의 회사는 해당 최저임금 적용에서는 제외되지만 그보다 낮은 최저임금 지급이 의무화되거나 지급 의무가 없을 수도 있다.

여러 주 및 지자체가 15달러 최저임금을 추진하고 있지만, 옥스팜 아메리카가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금액 역시 4인 가족을 부양하기에는 충분치 않다. 미국의 4인 가족 생활임금은 세전 기준 시급 24.16달러로 추산되며, 이는 최저 시급 15달러보다 훨씬 높은 금액이다. 안타깝게도 전반적인 임금인상보다 생활임금이 더욱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2022년 생활임금은 전년대비 3달러 가까이 높은 상황이며,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지역에서는 대부분 생활비도 가장 높다.

■ 2023년의 정치는 어떠할 것인가?

기존에 의회가 할 수 있었던 다양한 일들이 2023년에는 초당적 접근이 아니라면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취임 첫 2년 동안은 아주 근소한 차이이긴 해도 민주당이 양원 모두에서 우위에 있었지만, 중간선거 결과 공화당과 민주당이 각각 하원과 상원에서 우위를 점하게 되어 의회 주도권이 양분되었기 때문이다. 2021년 1월 6일에 발생한 미 국회의사당 난입 사건을 조사하는 하원 1·6 특별위원회는 연말 휴회에 앞서 조사 절차를 마무리했다. 특위는 미 정부에 대한 음모 및 반란 등의 혐의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한 것에 대해 법무부에 후속 조치를 권고하는 것 이상으로는 권한이 없다. 법무장관은 특위의 권고를 진행할 권한을 가진 특별검사를 임명했지만, 결국 특위가 해체되고 공화당이 권고 이행 절차의 대부분을 전 대통령에 대한 마녀사냥으로 치부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유례 없이 반대파 중 15표를 끌어들여 하원 대표로 선출된 공화당의 케빈 맥카시 하원의장은 특위의 업무를 조사하겠다고 맹세했다. 약속대로 특위는 18개월 동안의 이메일, 메시지, 통화 및 백악관 기록과 1천 건이 넘는 인터뷰를 정리한 최종보고서를 발표했다. 하지만 트럼프는 여전히 2020년 대선은 부정선거이며 선거 결과를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심지어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고 자신이 대통령직에 복귀할 수 있도록 미국 헌법을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치고 있다. 백악관은 이러한 주장에 적절한 반박을 내놓았다. 2022년 12월 30일 하원 세입위원회는 트럼프의 6년간 세금 신고서를 공개했다. 공개된 바에 따르면 트럼프는 6년 중 4년간 소득을 적자로 보고했으며 남은 2년 동안 소득세 1,500달러를 납부했다. 현재까지 양당을 통틀어 대

선 출마를 선언한 사람은 트럼프가 유일하다. 규모는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트럼프에게 충직한 추종자들이 있어, 2023년 역시 2022년만큼 정치적으로 흥미로운 한 해가 될 것이다.

KLI